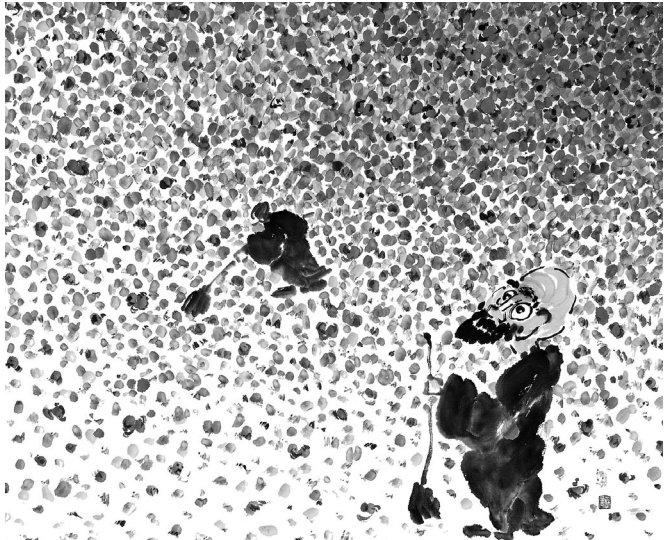


시 그림집으로 읽는 ‘달마대사’



진도 출신인 황청원 시인과 김양수 화가가 최근 시 그림집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를 발간했다. 왼쪽부터 ‘그냥 꽃잎을 쏜다’, ‘먼 길’.



진도 출신인 시인과 화가가 의기투합해 시 그림 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황청원 시인과 김양수 화가.

두 작가가 최근 시 그림집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책만드는 집)를 발간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황 시인은 197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우리나라 새벽안개’ 시집을 냈다. 오랫동안 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독자들에게 친숙한 문인이다.

6년 전 고향 진도 여귀산으로 돌아온 김 화가는 동국대와 중국 중앙미술대를 졸업했으며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전시화집 ‘산 아래 집을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를 펴낸 바 있다.

시인과 화가가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린 이번 시 그림집은 읽는 맛, 보는 맛을 선사한다.

김 화가는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황청원 시인과는 동향이고 대학도 동문이다. 둘 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우리가 금생의 인연이 보통이 아닌데 점 하나 찍자’는 마음으로 이번 책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 정진을 한 뒤 깨달음을 얻고 세상으로 나와 중생과 함께 생활했

진도 출신 황청원 시인·김양수 화가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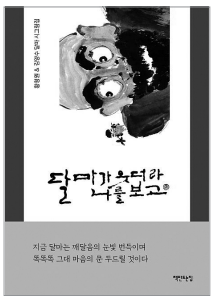
75편의 시·75폭 달마화 담겨

보살심과 자비심 등 잔잔한 울림

다”며 “달마대사의 가르침인 ‘보살심’, ‘자비심’으로 미력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시인은 달마가 2천 년이 지난 오늘 온다면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하며 시를 썼다. 후배 김 화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했다.

“그냥 꽃잎을 쏜다”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 소리 내 읊다 보면 잔잔한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너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 마음 번뇌를 쏘여 내고 있습니다/ 번뇌는 내버려두고 꽃잎을 쏘거나 / 다시 꽃잎 떨어질 빈자리 생길 수 있게”

마음의 번뇌를 다잡는 것도 좋지만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행하라는 뜻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처소를 정리하는 것도 마음공부일 테다.

시 ‘먼 길’도 위안을 준다. 먼 길을 떠나 함께할 벗이 있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보러 먼 길 왔는가/ 쉽 없이 왔는가/ 고단함 많았는가/ 우리 함께 잡드세/ 우리 함께 꿈꾸세/ 이 밤은”

책에는 모두 75편의 시와 75폭의 달마화가 담겨 있다. 특유의 명상이 담긴 짧은 시에 새롭게 해석해 그려낸 달마도는 오랜 여운을 준다. 시와 그림이 주는 콜라보다.

마지막으로 김 작가는 6년 전 낙향한 이유에 대해 “소치 선생이 추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내려왔는데, 저도 소치 후예로서 진도에 내려와 예술에 정진하고 싶었다”며 “여귀산 자락 작은 토굴에서 생활하며 마음 밝히는 공부도 하고 소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정신문화를 구현해내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맥주, 중세 수도원서 자급자족 했었다”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중세 수도원과 맥주’ 강연 성료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는 최근 2025년 첫 미식 세미나인 ‘중세 수도원과 맥주’ 강연을 성료했다. <전남대 제공>

맥주는 가장 대중적인 주류 가운데 하나다.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찜찜하면서도 시원한 맥주는 갈증을 풀어주는 청량제와도 같다.

맥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었으며, 나아가 단순한 술을 넘어 인류사의 물줄기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제로도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맥주를 모티브로 한 이색적인 강좌가 최근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가 마련한 2025년 첫 미식 세미나로 열린 ‘중세 수도원과 맥주’ 강연이 그것.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정민 경상국립대 교수는 ‘성인들의 보살핌이 담긴 맥주, 수도승들의 음료가 되다’를 주제로 맥주의 기원과 명칭을 비롯해 맥주와 관련된 지적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교수는 맥주가 중세 수도원에서 자급자족, 공동체 생활의 방편으로 자리 잡은 과정 등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중세 유럽에서 맥주는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고 통제된 음료가 아니었다”며 “다양한 지형, 기후 조건과 맞물려 종교 공동체의 생활운리와 연계돼 향유됐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소년들 현대 미술로 진로 탐색

전남도립미술관, 6월 3일~12월 2일 ‘미술관 사람들’ 프로그램

지난 2021년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현대 미술사 연구를 매개로 미학적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립 등을 비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후세대들에게 미술에 대한 안목을 물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주요한 임무다.

도립미술관이 학교 연계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6월 3일~12월 2일)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흐름을 반영하고 수준 높은 미술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주제는 ‘미술관 사람들’. 과정은 크게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컨서베이터’로 짜여져 있다.

이지호 관장은 “올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컨서베이터’ 과정을 추가한 점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도립미술관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15~30명 단위로 진행되며 희화고는 분야를 선택해 11월까지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내에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 장면. <도립미술관 제공>

김민경 팀장은 “이번 ‘미술관 사람들’은 미술관과 연계된 직군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술관이 실행하는 전시 등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근대 여성 자취 따라 걷고, 풍경은 그림으로 담고

광주여성가족재단 운영 프로그램

‘어반드로잉으로 만나는 두흙길’

5월 21일~6월 25일 양림동 일대

광주 근대 여성들의 자취를 따라 걷고, 도시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보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재단)과 광주예술공간연구소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남구 양림동 일대와 북카페 은새암에서 ‘어반

드로잉으로 만나는 두흙길’을 운영한다. 선착순 15명, 무료.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여성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근대 여성 교육과 여성 선교사의 역사가 깃든 양림동 두흙길을 직접 걸으며, 사적지와 풍경을 관찰하고 어반드로잉으로 그 순간을 기록하게 된다. 총 6회차 수업에서 인물, 소품, 공간 등을 주제로 드로잉 수업이 이뤄지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의 작품을 모아

북카페 은새암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린다. 두흙길을 담은 시민들의 어반스케치가 전시되며 지역 사회와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광주의 여성사를 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성평등 관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은새암도 앞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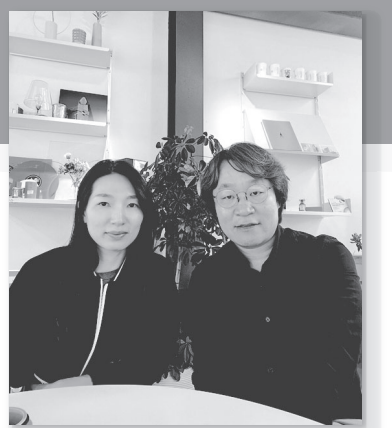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